

제 8 장 개인생활사



8장 개인생활사

이 지 누 · 분단문화연구소장

개 관적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극점으로 움직여 온 한 개인의 생활사를 들여다봄으로써, 한 지역 생활풍습의 고유성과 외적 개입에 따른 생활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과 성격으로 전체 지역문화의 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 개인의 생활사를 세밀하게 들여다 보는 것은 개인의 성향과 입지에 의해 나타나는 차이를 통해 한 지역을 이해하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각 개인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는 다른 도와는 달리 수도권의 급격한 개발로 인한 주거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생활상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른 도와 유사한 점들은 배제하고 경기도만이 지니는 특징적인 점을 찾아내려 노력하였다. 그리고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가능한 한 제보자가 사용한 언어를 그대로 살려 기술하였다.

1. 연천군 장남면 원당 3리 권태응씨의 생활사

그 자체로만으로도 타도와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조사자가 관심을 기울이며 접근한 곳은 휴전선과 인접해 있는 민통선 북방지역(이하 '민북지역'으로 약칭)이다. 전체 휴전선 길이를 약 248.5km로 본다면 그 중 반을 이고 있는 경기도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연천군 장남면을 기준으로 서쪽으로는 도의 면적을 잃은 것이 되고, 동쪽으로는 강원도 철원군과 만나는 연천군 신서면까지를 수복한 독특한 과거를 지

1. 연천군 장남면 원당 3리 권태응씨의 생활사
2.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안병석씨의 생활사
3. 마무리

니고 있다.

그 후 지속되어 온 분단은 파주시의 일부와 연천군의 일부에 '민간인 출입통제선'이라는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의 독특한 선을 만들어 냈고, 휴전선과 남방한계선 그리고 민통선이 만들어 내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이 변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그 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민북지역의 독특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살아온 연천군 장남면 원당 3리에 사는 주민들 중 한 명을 제보자로 선정하여 조사에 임하였다. 이러한 조사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이는 의외로 찾기가 힘들었는데, 그 이유는 토박이들이 흔치 않기 때문이었다. 이 또한 민북지역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해 낼 수 있는 제보자로 장남면 원당 3리에 사는 권태웅씨(남, 81세)를 선정하여, 그를 통해 지역의 특성 속에서 이루어진 민북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을 민속지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기본적인 조사방법에 의한 기술 이외에 민통선지역에 대한 별도의 항을 설정하여 민북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보자는 장남면과 인접한 지역인 장단군 장단면 노화리에서 태어나, 기억하지 못하는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장남면으로 이주한 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었다. 그리고 전쟁 이후 고향 마을이 접적지역 및 민간인출입통제구역으로 분류되어 타지 생활을 하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본격적인 조사 이전에도 이미 제보자와 수차례 만난 적이 있어 조사자와 제보자 간에 자칫 있을 수 있는 거리감이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었다. 이번 민속지는 세 차례의 방문을 통해 채록된 자료를 위주로 정리하였다. 다만 조사중 제보자가 고향인 관계로 정확한 연도를 기억해내지 못한 점 이외에는 채록을 위한 세 차례의 방문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 마을 개관

권태웅씨가 살고 있는 연천군 장남면은 고랑포리·반정리·자작리·관부리 그리고 원당리의 모두 다섯 개 리(里)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리는 원당리와 자작리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나머지 지역들은 비무장지대에 속해있거나, 농사는 지을 수 있으나 출입 영농만 허용되고 주민의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다.

장남면은 한국전쟁 전에는 장단군에 속한 곳이었다. 동으로 사미천을 두고 연천군 백학면과 경계를 이루고, 남으로는 임진강을 경계로 파주군 적성면과 경계를



원당리에서 내려다 본 임진강

이루고 있던 장단의 동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결과로 장단군의 대부분이 비무장지대로 들어가 버려, 1963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휴전선으로 갈라진 장단군 장남면은 사라지고, 연천군 백학면으로 편입되는 불운을 맛보기도 했다. 한국전쟁 이후 줄곧 민간인 출입통제선 북방에 위치한 지역이었지만, 사람이 입주해 살고 있는 원당리와 자작리 일부 지역은 1995년 6월에 민북지역에서 해제되어 지금은 출입이 자유로운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민간인 차량보다는 군인 차량들이

더 많이 다니고, 원당리 뒤편으로 직선거리 500m정도에 비무장지대를 형성하는 남방한계선이 있는가 하면, 마을 앞을 감돌아 나가는 임진강이 민통선 역할을 하고 있어 북에서 흘러 내려오는 사미천에 걸린 경포교라는 다리만 막으면 군사적 목적에 의한 통제로 오갈 데 없는, 인류학적 차원에서 분계지역과 한계지역의 특성을 지닌 곳이기도 하다.

원당리는 예전에 원당동·구야동·효곡동·석교동·신대동·주곡동의 여섯개 동(洞)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자작리라는 곳에 이 지역을 관장하는 동헌이 있었다고 한다. 자작리는 지금 일부만 입주가 이루어진 곳인데, 이곳에 고읍동이 있었고, 동헌이 바로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고읍동에 있었던 것이다. 원당리는 동헌에 근무하던 원님의 집이 있었던 곳이라 해서 원님의 ‘원(元)’과 집 ‘당(堂)’을 써 원당리라 한다고 한다. 지금도 원님 집이 있었다는 곳에는 긴 장대석이며 큼지막한 주춧돌이 보이기도 한다.

앞서 기술한 대로 원당리는 여섯개 동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에 의해 ‘원대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원당 3리에는 안동권씨 금교대장군파가 많이 살았으나 지금은 일곱 집이 남았고, 예전에 ‘부자터’라고 불렀던 ‘소낭굴’, 즉 효곡동에는 선영남씨가 대씨족을 이루고 살아 타동의 부러움을 살 지경이었다고 한다. 행정구역으로 원당 3리로 구분되는 마을은 원대이와 소낭굴 두 마을이 합쳐진 것이고, 권태웅씨는 원대이에서 줄곧 살아오고 있다.

원당리는 바로 앞에 임진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어업에 종사하는 이는 없고, 대부분이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전에는 모두 151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 145가구가 농업을, 5가구가 잡화점을, 1가구가 운수업을 했다고 한다. 지금은 농지의 일정 부분이 민통선 북방에 위치해 있어 철따라 달라지는 일조

시간에 맞추어 출입시간이 변경되고 출입시마다 신분을 확인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가구수에 비해 농지가 부족한 편은 아니다. 그것 또한 이 지역의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인데, 땅은 넓으나 사람은 살지 않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장남면 일대에는 1962년까지 민간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1962년 6월 2일에 원주민이었던 92세대의 입주가 허용되어 사람들이 돌아 오기는 했으나, 과거처럼 마을이 북적거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뿔뿔이 흩어지 타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고, 당시의 살벌하던 분위기를 상상해 보면, 아직도 전쟁의 흔적들이 난무한 휴전선에 인접한 접석지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들이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입주가 허락되면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휴전선 인근 접석지역의 공포와 불편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마을을 떠났기 때문에 농지가 가구수에 비해 넉넉했다고 한다.

권태웅씨의 집이 자리 잡은 곳은 예전의 집터와는 다른 곳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민북지역이었던 탓이다. 입주가 허락되면서 전쟁으로 부서진 땅에 새로이 집을 지으면서 예전 우리네 집들처럼 이곳 저곳 농토에 따라 지어졌던 자연친화적인 주거 환경과는 달리 한 곳에 집단 거주시키는 형태로 지어졌다고 한다. 치열한 전투의 결과로 남았던 불발탄이며 지뢰들을 우신적으로 제거한 지역에 집단 이주한 셈이다. 당시 정부에서는 ‘자립안정촌’, ‘재건촌’, ‘통일촌’ 등의 이름으로 민북지역에 입주를 허용했는데, 장남면의 경우 ‘자립안정촌’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지금 현재 원당리에는 모두 78가구 살고 있는데, 이 중 76가구가 농사를 지으며, 1가구가 잡화점을, 또 다른 1가구가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등 생활을 위한 부대 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하기에 마을 주민들은 인근 백학과 과주시의 적성·문산으로 장을 보러 나가기도 한다. 민통선이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입구인 경포교에서 북상하여 고랑포리로 올라간 1995년 6월 이후에는 음식점이 생기고 진입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되는 등 마을은 예전보다 활기를 띠고는 있으나, 어느 농촌 지역보다는 여전히 침잠한 모양을 보여 주고 있다. 주민의 수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200여 명을 넘으며, 300명이 채 되지 않는 수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장남면의 면소재지는 원당리와 경계를 두고 있는 고랑포리에 있었는데, 고랑포는 임진강 유역에서 가장 교통이 발달한 곳이어서 인근의 군내면이나 문산·전곡 등지로 출입하는 버스가 하루에 세 번 정도 왕래를 하였고, 나무터에는 지금으로 치면 카페리라 할 수 있는 우마차와 트럭을 운반하는 배가 한 척, 행인을 태우던 나룻배 두 척이 면소유로 있었으며, 유람선이나 고기잡이배를 포함해 모두 열대여섯 척이 늘 고랑포 포구에 황포돛을 드리우고 있었다고 한다. 교통 시설이 발달된 곳이었으니 자연 각지의 산물이 모이게 되고



왕(敬順王) 김부(金傅)의 능이 있는가 하면, 원당리에는 자미성(紫巒城)이라 불리는 호로고루성(瓠蘆高婁城)이 있기도 해서 마을사람들은 임진강변의 뛰어난 석벽의 경관과 함께 이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해 주민 소득을 올릴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나, 집적지역과 인접한 지역이며 유적지들이 모두 민통선 북방에 속한 관계로 군(軍)당국의 허락이 나지 않는 상태이다.

마을에는 특별히 이어져 오는 민속적 제의나 놀이를 찾아 볼 수 없는데, 그것 또한 민통선 북방지역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을에서는 부군당이 있어 삼 년마다 큰굿을 하곤 했었으나, 전쟁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굿이 벌어진 적이 없다고 한다. 그것은 인근한 고랑포에서 있었던, 당시 경기 북부에서 치러진 굿판 중 가장 컸다는 고창굿도 마찬가지로 형편이다. 전쟁 이후 지금껏 고랑포에는 원주민들이 입주할 수가 없었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들은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권태웅씨는 사람들이 떠나서 문화나 그 지역의 습속 따위들이 사라져 버린 것을 유난히 아쉬워하고 있었다.

2) 조상

1917년 7월 18일생인 권태웅씨의 본관은 안동이며, 안동 권씨 금교대장군파에 속한다. 권태웅씨의 11대조가 원당리에 입향한 이래로 지금까지 12대째 살고 있다. 그런데 권태웅씨는 두 쪽의 조상이 있는 셈이다. 권태웅씨는 태어나기는 장단군 장단면 노화리에서 태어났으나 6세에 지금 사는 원당리에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태웅씨의 생가라 할 수 있는 안동권씨 직장공파인 장단쪽 집의 일은 너무 어릴 때의 일이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단지 원당리에서의 기억만 남았는데, 권태웅씨가 기억하는 증조부나 고조부님들은 모두 농사를 지으며 산 중농 정도의 분들이었다고 한다.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만이 유일한데, 줄곧 농사만 지으며 사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1944년이라고 한다.

지금은 원당리 일대가 전부 논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엔 논보다 밭이 많았다. 주로 조·피·콩 등을 많이 심었는데, 권태웅씨네는 조를 이십 석이나 할 정도로 많이 했었다고 한다. 그건 장단면 일대 모두가 그랬는데, 고랑포는 콩 눈이 희어서 백태(白太)라고도 불리던 장단대두(長湍大豆)의 집산지라 1912년에서 1921년 사이에는 연평균 80,000가마의 검사품이



권태웅氏

고랑포를 통해 인근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경원선의 개통과 경의선 장단역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설되고 난 후부터는 고랑포의 배를 이용하기보다는 트럭으로 기차역까지 운반하여 철로를 이용한 수송을 하게 되어 대두 매매에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 무렵 권태웅의 조부는 조 이십 석, 쌀 몇십 석 정도 하는 살림살이로 집을 새로이 짓기 시작했는데, 당시 살던 집이 많이 망가져서 안과 밖을 합해 이십 칸 정도의 집을 지을 계획으로 공사를 시작했었다고 한다.

“조만 이십 석을 하고 쌀도 몇십 가마는 했지요. 그걸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안채는 재목도 좋은 걸 구해 다가 짓구 맞벽도 하고, 바깥채를 지을 때 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십 칸 집을 짓느라 여러 날 걸려서 집에 있던 거 다 먹었을 때예요. 그때는 술두 살 수 없고, 광목도 살 수가 없었어요. 설탕도 그랬고, 담배도 줄 서서 사구 그럴 때 었어요.”

당시 권태웅씨네는 선산에 기대(무당이 굿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음악을 맡은 사람) 집이 있어서 집 바로 뒤편에 산소를 쓰면 되니 상여는 관두고, 관으로 그냥 메고 올라갈 요량을 하고 간단히 장례를 치르려 하였으나 마을 어른들의 강력한 반대 부딪혔다고 했다.

“아, 집을 짓느라 이것저것 다 파먹고 보릿고개 속 봄인데 집에 뭐가 남아 있는 게 있었나요. 그러니 집 바로 뒤편 산소니까 그냥 관으로 메고 올라가려 했었어요. 그런데 동네 어른들께서 모두 그러면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여도 중틀·하틀도 아니고 대틀로 모셔야 한다고 하니, 대틀을 쓰려면 상여꾼도 스물네 명이나 써서 미야 하고, 그때는 스물 아님 스물넷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요되는 사람만도 삼십 명이 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 전부 베로 더거리 맨들어 입히고 광목도 있어야죠. 사람들은 호상이라고 좋아들 했지만, 우리집은 보릿고개에 집 짓느라 있던 양식 다 파먹었죠. 그 상황에 일을 치를라니까 고생이 심했지요.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가는 사람 소홀히 보내면 안된다는 거죠.”

그렇게 고생 끝에 할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곧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 공간의 어수선한 시기에 권태웅씨의 집안은 그 동네에서 조금 사는 축에 들었고 권태웅씨가 면서기를 하며 집도 고쳤다는 등의 이유로 가택 수색을 당하는 등의 고초를 겪었다고 했다. 그 와중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셔서 권태웅씨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

는 시기를 즈음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을 모두 잃었다.

3) 부모님

권태웅씨의 부모님들은 현재 모두 생존해 계시지 않는데, 안동권씨 32대손인 아버지 권종식씨는 생존해 계시면 올해로 101세가 되고, 순흥안씨인 어머니 안정분씨는 99세가 된다고 하였다. 권태웅씨가 양자로 입양된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하였지만, 그의 남동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내자식이 없어서 입양된 것은 아닌 듯하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여 아쉬운 점이 남는다.

권태웅씨의 아버지는 농사를 그리 많이 하지는 않았으나 권태웅씨가 살던 원당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부자집이었다고 한다. 그 덕에 아버님은 서당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마을에서 글 꽤나 아는 축에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 외에는 부모님 모두가 평범한 농부였다고 했다. 한국전쟁으로 줄지에 고향을 떠났던 권태웅씨 일가는 경기도 일대를 떠돌다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의 은평구 갈현동에 정착했는데, 1962년 고향 마을에 입주가 허용된 다음 해에 고향으로 돌아와 5년여를 지냈으나, 앞서 이야기한 휴전선 인근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지 못했던 듯하다. 5년여를 고향에서 보내다, 다시 갈현동으로 돌아온 권태웅씨의 아버지는 권태웅씨가 모든 가족을 이끌고 3차로 고향에 들어가려 날을 받아 놓은 1980년 10월 18일을 아흐레 앞 둔 10월 9일에 돌아가셔서 4일장으로 장례를 모셨으며, 어머니는 원당리로 들어온 지 4년 뒤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4) 유년 시절

권태웅씨는 노화리에서 원당리로 입양되어 올 당시까지의 일은 워낙 어린 시절 일이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생가나 입양된 집이나 모두가 유교 사상에 젖어 있어 신학문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학교에는 보내질 않다가 마을 구장과 주재소 소장의 권유에 못 이겨 당시 장남면 소재지였던 고량포리에 있던 초등학교에 다녔다고 한다. 당시는 사학년까지만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가 많았는데, 고량포초등학교는 육학년까지 과정이 있어 초등학교 교육을 육학년까지 받았다고 한다. 학교를 늦게 들어간 탓에 육학년에 벌써 열다섯 살이어서 권태웅씨는 초등학교 육학년 때에 결혼을 하였다.

“내가 학교를 늦게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때는 어른들이 신학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나 아버지 모두 동네에서는 글 좀 알고 하시는 분들이라 특히 그랬던 모양인데, 우리야 여럿이 모여 있으니까 학교에 가는 게 좋았죠. 그러다 구장이나 주재소 소장이 자꾸 학교 보내라니까 마지못해 학교에 보내 준거죠. 지금은 국민학교들이 전부 육학년까정 있지만, 그때는 사학년까지 있는 학교가 많았어요. 내가 다니던 고랑포국민학교는 육학년까지 있었는데, 요 근동에 육학년까지 있는 학교가 세 군데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학년까지 마친 학생들이 고랑포로 전학들 와서 오륙학년 다니고 그랬지요. 내가 열다섯 살때 장가를 갔는데, 그때가 육학년이었으니까 아마 열 살이나 돼서 학교에 들어갔나 봐요. 육학년 때 장인 영감이 학교로 선을 보러 왔어요. 와서 봐도 뭐라 묻지도 않고, 공부하고 교실에 있는 거 보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첨엔 나도 몰랐지요. 집에 가니 오늘 누가 학교에 오지 않았더냐고 아버지가 물어요. 그라고 얼마 있지 않아 혼인을 했어요. 장인 영감만 날 보고 갔고, 우리 부모들은 색시를 봤는지 모르지만, 난 색시 얼굴도 못 보고 혼인한거죠.”

권태웅씨가 ‘내자’라고 표현하는 윤남석씨는 올해로 권태웅씨보다 두 살 위인 83세이다. 고향은 원당리와 인근한 자작리의 오리골인데, 이곳은 남방한계선 바로 아래여서 지금은 ‘출입영농지역’으로 되어 있다. 권태웅씨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결혼하게 되었던 것은 당시 풍습도 풍습이지만 집안에 일꾼들도 있고 여자들도 많이 있어서 “안 손포는 모자라지 않는데, 날 장갈 보냈다 말어요. 그건 부모님들 욕심 같애.”라고 한다. 권태웅씨의 부인인 윤남석은 최근 들어 건강이 좋지 않아 백학면에 있는 보건소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권태웅씨가 같이 다니고 있고, 아침·저녁식사 또한 권태웅씨가 직접 하고 있다고 했다.

장가드는 날에 마을에서는 말을 타고 내리는 신랑을 돕기 위해 쌀 섬을 말걸에 갔다 두어 디딤돌로 쓰게 했는데, 나이 어린 신랑을 꿰려주느라 나락은 다 빼고 헛섬을 가져다 놓아 말을 타고 내리며 섬에 올라서는 새신랑이 넘어지게 만드는 놀이를 했었다. 한두 번 떨어지고 넘어지는 자신을 보곤 안쓰러웠는지 장인 영감이 번쩍 올려서 말에 태우고 내려주었다고 한다. 색시 집에 도착해서 사랑방에 앉아 있으니 동네 청년들이 찾아와서 필문필답(筆問筆答)을 했는데, 그 때도 새신랑을 꿰려주느라 마을 청년들은 좋은 붓을 가지고, 자신한테는 좋지 않은 붓을 쥐 글씨가 뻑뻑뻑뻑하여 악필이 되게도 하고, 답하기 어려운 고약한 글귀들을 써놓아 자신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는 것이다.

권태웅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마을에 있는 서당엘 삼 년 정도 다녔다. 인근에는 냉천서당(冷泉書堂)이 있었으며, 권태웅씨가 다닌 서당은 이름이 따로 없

었고 이십 명 정도가 동문수학하였다. 서당 글방의 반장을 접장으로 불렀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

권태웅씨가 즐겨했던 놀이는 강가에 내려가 먹감고 고기잡는 것과 연날리기 정도가 전부였다고 한다. 그때 연줄에 유리가루를 풀하고 섞어서 입히고는 연줄 끊기 놀이를 즐겼는데, 권태웅씨가 연날리기를 즐기던 뒷산은 지금 민통선지역 안에 속해 있어 가보진 못했다. 그 곳에서 강을 내려다보며 강바람과 산바람에 이리 오르고 저리 내리고 하던 연날리기는 권태웅씨의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아 있었다. 그 외의 놀이도 많았을 법 했지만 딱히 기억하고 있는 이 지역만의 놀이는 없었다.

아무리 학교를 다니고 서당을 다니곤 해도 농사일이 바쁘면 농사일이 우선이었다는 권태웅씨는 농사일 중에 허드렛일을 돕거나 산에 낭구(나무)하러 가는 것을 그의 어린 시절 일상이었다고 한다. 그러니 별다르게 놀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 당시 학교 다닌 이들 모두가 그랬겠지만, 권태웅씨 또한 학교에 가면 공부 이외에도 술방울 따기며, 여름에는 한삼냉쿨이나 칠팔쿨 깎대기 벗기기 따위에 동원되기도 했었다. 또 빈터마다 기름 찌한다는 이유로 피마자를 심어 공출에 내고, 권태웅씨가 다니던 고량포 초등학교 운동장에까지 고구마를 심어 공출로 냈다고도 한다. 그렇게 힘들게 다니던 학교지만 소풍 갈 때만은 좋았다고 한다.

“저학년일 때는 바로 학교 옆에 있는 경순왕릉에 가기를 자주 했지요. 그러다 고학년이 되시는 파주에 있는 늘로리라는 데 서원이 있었어요. 용추서원인가 하는 텐데 기기까정 걸어서 갔다오고 적성에 있는 감악산에 폭포도 갔었지요. 지금 갈 으문 버스 대절해서 개성이나 뭐 그런 데로도 갈 엄두를 냈겠지만, 그때 어디 가 당키나 했나요. 도시락 허리에 차고 걸어가기만 하면 그게 다지요.”

장남면에는 풍물패들이 소문났었는데, 특히 소낭굴패들은 인근 지역에서도 알아줄 만큼 잘 놀았다고 한다. 반면 소낭굴보다 빈한한 살림살이를 꾸려 가던 원당리패들은 그만 못했다고 한다. 잠시 농한기인 칠월 백중이 되면 서로 마을을 오가며,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풍물을 치고 놀았는데, 경제력이 다른 집보다 나은 권태웅씨 집에는 단골로 들리곤 했다는 것이다. 풍물패들이 집으로 찾아 들면 그 집에서는 술과 음식을 내오곤 했었다. 권태웅씨는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으니까 마당 한 쪽의 부뚜막에 걸려 있던 가마솥 뚜껑을 밟고 올라가서 보곤 했었는데, 어느 해에는 하도 많은 사람이 솥뚜껑에 올라가는 바람에 뚜껑이 깨져 버려 낭패를 당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겨울날에 밤이 깊어져 출출해지면 친구들과 메밀을 뺏아서 깻통에다 끓이고 동치미 국물과 같이 먹으며 지내던 권태웅씨는 임진강가에서 사금 캐는 일도 했었다

고 하였다.

“여, 구야동에 살던 노인네가 그걸 개발했는데, 서당 다니면서 할 일도 없고 하니
까, 서당 끝나고 집안 일 하다가 틈이 나면 강가에서 사금 캐는 걸 도와주고 용돈
벌어도 하고 그랬어요. 고랑포가 옛날에는 세 군데가 있었어요. 아랫 고랑포, 가
운데 고레이, 웃 고랑포 해 가지고 모두 세 군데에 나루터가 있었는데, 아랫 고레
이쪽 강가에서 그걸 했어요. 추운 겨울에 처음 시작했는데, 아침에 여기저기 모
래사장에다 구덩이를 파요. 모래를 파면서 그걸 채 같은 데다 흘리고, 또 구덩이
에 채를 담구고 모래를 퍼서 채에 흘리면 금이 나왔어요.”

아직 나이가 어린 시절이고,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고 모래 파는 일 따
위를 해서 일당으로 돈을 받아서인지 사금 채취를 할 때의 도구라던가, 그 순서 같
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그때 벌은 돈으로 어르신들 선물도 사
드리고, 권태웅씨 자신이 서울로 진출할 꿈을 꾸었다고 했다.

5) 청년 시절

권태웅씨가 열여덟 나던 해에 처음으로 서울에 가봤는데, 사금 채취장에서 번
돈으로 서울의 당숙네집을 찾았던 것이다.

“아니, 너무 시골에만 쫓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집에서는 내가 없어도 일꾼
들이 있으니 일손이 딸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나도 발전시키고 돈도
좀 벌고 해 볼려고 간 거지요. 그때 당숙이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듣기론
꽤 괜찮게 산다고 해서 그 집에서 신세를 지며 일자리를 알아볼려고 했었어요.

그래 부모님들한테는 말씀드리면 승낙하지 않을 테니까 도망가듯이 여기를 빠
져나가는데, 여기 위에 웃고랑포가 있어요, 자지포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장단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누구네 어른인지 잘 생각나지도 않는 동네 어
른을 만났어요. 그래 부모님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집사람한테도 그렇고 해서
그 어른한테 급한 일이 있어 어딜 댕겨와야 하니 돈을 우리 부모님들한테 전해
달라고 했어요. 그때 돈으로 한 십원쯤 됐을꺼예요.

그리구선 적성으로 가서 문산행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기차 타고 서울역으로
갔지요. 그런데 당숙집에 도착해 보니까 말처럼 그렇게 잘 살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동대문 근처에 살고 계셨는데, 그때 서울에 집짓고 뭐 이런 거 한다고

난리였어요. 지금 신선동 일대를 개발할 텐데, 산 뭉개서 정리해 놓고 거다 집 짓고 할 텐데, 당숙이 거서 일을 하고 있어 나도 공사판으로 일 따라 갔었지요. 곡괭이질이나 삽질하고 요새 말하는 막노동판에서 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권태웅씨가 몰래 서울로 떠났던 나루터는 통칭 장단나루라 하는 곳으로 고려 태조인 왕건이 장단석벽의 풍광을 즐기며 뱃놀이를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하고, 조선 태조인 이성계가 삼도도순찰사(三道都巡察使)의 명을 받고 길 떠난 곳도 바로 이 나루터였다. 어렵게 길 떠난 권태웅씨가 겪었던 서울 생활은 당초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성에 차지도 않았던지, 당숙집에 머물면서 평양의 병기제조장에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다고 한다.

“서울로 왔을 때는 다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막노동판에서 일을 해 가지고는 내 개인에게 발전성도 없고 해서 서울역 근처 어디서 그 공고판을 보고는 지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합격을 했어요. 서울에 일 년이 새 못되게 있다가 평양으로 간 거지요.

지금 지 서울에서 문산까정 오는 기차, 그게 옛날에는 신의주까지 갔어요. 그래 그걸 타고 평양으로 갔지요. 거기 가서는, 지금 말하면 공원 같은 건데, 공장이 엄청 컸었지요. 내가 했던 일은 기계 같은 걸로 불, 지피고 거기다 쇠를 달궜서 쇠를 소용대로 늘궜주면, 그걸 다시 기계로 내리눌러 잘라내고 하는 일이었어요.

열심히 일했지요. 봉급도 공사판보다 좋고 대우도 훨씬 좋으니까 그랄 수 밖에 없었지요. 그래 거기서 한 이태 정도를 일했나, 어느날 원당리에 계시던 아버님이 덜컥 날 데리러 평양으로 오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아버님이 그때 단단히 화가 나 있었어요. 안 그랬겠어요. 나야 나를 발전시킬 좋은 복직으로 간 거지만 말도 없이 서울로 떠나고, 또 평양까정 갔으니까 노했단 기조. 집사람한테도 연락을 하지 않았으니 말예요.”

그는 서울이나 평양에 있을 때 일 말고는 별 다르게 해 본 것이 없다고 했다. 18세에 고향을 떠나 22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권태웅씨는 면서기로 취직이 되어 그가 한평생 살아온 공무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때 여기 면장이 이성호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분은 우리면 출신인데, 그 분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심히 봤던 모양이에요. 학교도 육학년 다녔고, 한학 서당에도 다니고 사금도 캐러 다니고 하는 모양이 성실해 보였던지 고향으로 오니까

면서길 하래요. 그때야 뭐, 지금처럼 공무원 채용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성실하고 글 알고 그러면 되는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권태웅씨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면서기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면서기는 일반 평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보국대와 징용에 보낼 사람들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랬어요, 면서기 하는 걸 상당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동료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했지요. 동네 청년이나 어른들은 그런 면서기들한테 불만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난 면에 있어도 재무나 회계 같은 걸 담당해서 마을 사람들하고 마찰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마찰들이 심했어요. 부락에서 나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나야 면에 회계만 보면 되니까 나다닐 필요는 없었어요.

당시에 대동아전쟁이 한참이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전쟁하는 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공출이라는 이름을 붙여 마구잡이로 우리것들 빼앗아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필요한 게 물건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도 필요하니까, 일할 힘이 있는 젊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보국대나 징용이니 하는 데로 보내고 그랬지요. 요새 보니까 할머니들, 정신대라고 하는 여자들도 그때 다 붙잡혀 간 거죠. 면서기들하고 마을사람들하고 마찰이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기고 했어요. 나는 재무나 회계 쪽이라 담당 부락이 없었지만 다른 면서기들은 모두 담당 부락이 있어, 그 부락의 이장들하고 의논해서 징용 보낼 사람을 정하기도 하고 보국대 보낼 사람을 뽑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면서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지요. 또 면서기들이라고 다 착한 사람은 아닐 테니까 그 중에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마을 사람들 보살피는 사람도 있었고 일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권태웅씨가 면서기 생활을 시작한 것은 1939년부터였다. 일본은 한참 전쟁에 광분해있던 시기였고, 당시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가지 명분으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 전쟁에 동원되던 시기였으니, 그런 다툼이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권태웅씨는 재무나 회계를 보았으므로 담당 마을이 없어 사람들과 별반 마찰 없이 잘 지낼 수 있었고, 자기 손으로 징용이나 보국대 같은 데 보낸 마을사람들은 없었다고 했다. 권태웅씨도 나중에서야 알게된 사실이지만, 당시 면서기들은 총독부 도장이 미리 찍혀 있는 용지들을 가지고 다녔었다고 했다.

“같은 면사무소에 있어도 난 처음에 면서기들이 지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징용 통지서를 받는지 궁금했어요. 도지사 도장이 찍힌 통지서가 배달되면 벌벌 떨던 시절이라 이상하게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사람을 끌고 갈려고 도에서 미리 도장이 다 찍혀 있는 통지서를 각 면으로 내려 보낸거예요. 그것도 뭐 도에서 그랬겠어요. 총독부에서 그렇게 시킨 거겠지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 면서기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지요.”

당시 권태웅씨의 봉급은 약 30원 정도였다고 기억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다고 했다. 다른 직업보다는 좀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권태웅씨의 집에서는 논 삼백 평 정도와 밭 삼천 평 정도를 부치고 있었다고 한다. 밭은 강 가까이 있어 큰물이 들기만 하면 헛농사 지을 정도로 피해가 심해서 해마다 손해를 보곤 했었는데, 권태웅씨가 면에 다니면서 받은 돈으로 논을 마련해 한국전쟁 전에 논이 오륙백 평까지 늘어났었다고 한다.

그러나 해방 공간에서는 권태웅씨도 고초를 겪었는데 그 와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했다고 한다. 해방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면에 다니던 이들을 모두 일본의 앞잡이로 몰아 가택 수색을 하고, 면서기들은 도망 다니고 하던 일이 있었는데 권태웅씨는 자기 손으로 징용이나 보국대에 보낸 사람은 없었지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경우를 당했다고 한다. 그런 모습을 본 할머니가 충격을 받아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셔서 권태웅씨는 해방의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겪었다고 한다. 그 후 한국전쟁이 난 1950년은 면서기 생활이 11년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새벽에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나도 전쟁 난 지 모르고 있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동네 사람들이 우리 마당으로 몰려 왔어요. 내가 면에도 댕기고 그러니까, 뭐라도 알고 있는지 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거예요. 그래, 요 뒤 산동성이에 올라가 보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딱딱딱하는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한테는 전쟁이 아니고 국방군이 유인작전을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해 안심시켜 놓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전쟁이 났다고 하는거예요. 그래, 요 앞 나이롱다리 있는 데 불종대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 사미천 건너를 보니까 인민군들이 멀리 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도 우리 마을에는 들어오지 않고 그냥 전진만 했었는데, 집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될 것 같으니까 어디 숨자고 했어요. 그날 저녁쯤 아낙네들이 강 건너에 있는 인민군들을 봤다고 해서죠. 그렇게 지내다가 인천상륙을 듣고 9·28 수복이 됐어요. 숨어서 라디오를 계속 듣는데 미군들이 올라온다고 해서 마을 청년들끼리 모였어요. 난

거기 모이진 않았는데, 아홉인가 모여서 미군들이 다시 올라오니까 환영을 해야 한다며 태극기를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아직 그때까지 마을에 인민군들이 왔다갔다할 때여서 조심스럽게 만들었다는데, 그걸 누가 보고는 일러바쳤어요. 그래 그날 밤으로 죄 잡혔지요. 한 명을 먼저 붙잡아 그 사람을 시켜 다른 사람 숨은 데를 알아내고는 그 사람을 시켜 괜찮으니까 나오라고 해서 모조리 잡았지요. 그렇게 열세 명을 모두 잡아 뒷산에 구덩이를 파고 총살을 시켰지요. 나도 면서기 노릇을 했으니까 인민군들이 찾던 반동이었던 셈인데 용케도 숨어 다녔어요. 9·28 수복 나고, 이런 저런 사건이 있고 숨어 다니다,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날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0월 5일이에요. 그 후에 다시 미군 탱크가 들어온다고 해서 싸이렌 울리는 불종대로 나가 멀리라도 그 모양을 보며 좋아했던 기억이 있네요.”

권태웅씨가 ‘나이롱다리’라 부르는 다리는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입구인 사미천에 걸쳐있는 다리인데, 원 이름은 경포교다. 그런데 나이롱다리라 부르는 이유는 한국전쟁 당시 1·4후퇴를 하던 미군들이 후퇴를 하며 다리를 폭파시켜서, 다시 마을에 입주가 허용되었을 때는 철선으로 대충 엮어 아래는 판자를 깔고 흔들흔들하며 임시로 건너다니게 해놓아 나이롱다리라 부른다는 것이다. 그렇게 전쟁을 치르던 권태웅씨네 일가가 고향인 원당리를 떠난 것은 1950년 겨울이었다. 권태웅씨 자신이 수원 근처의 화성군 향남면 사무소로 기동 배치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포함해 열여섯 식구를 데리고 수원에서 토굴을 파고 거적매기를 쓰고 몇 달을 지내다 향남면으로 갔는데, 거기도 전쟁중이어서 변변한 집이나 입성이 없어 마치 비닐 하우스처럼 작은 움막을 만들어 지냈는데 부모님들까지 계시기가 불편해 부모님들은 근처의 봉담면으로 가서 살았다고 한다.

최근에 권태웅씨는 당시 부모님들이 신세졌던 집의 아들인 이주영씨를 만났는데, 그네 10대조와 11대조의 산소가 장남면의 판부리에 있어 만날 수 있었다. 판부리도 장남면의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은 비무장지대 안에 속해 있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입주 영농만 가능한 지역이지만,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는 성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것 또한 군부대의 승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조상의 산소를 찾는다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의 불편은 참을 수 있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이다. 명절때마다 임진각이나 어디 고향이 보이는 곳에 가서 단출한 상 차려놓고 절하는 것보다는, 민통선 안에 있어 출입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산소에 직접 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에서 다행한 일인지도 모른다.

“기동 배치돼서 향남면에 근무하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때쯤 서울로 옮기면서 세무서로 갔지요. 그때는 국세청이라고 하지 않고 사세청이라 했는데, 마침 거기에 경기도 내부국장을 지냈던 고향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 날 그쪽으로 불렀어요. 그래 첨엔 서대문세무서, 그리고 동대문에 있다가 나중에는 종로세무서로 왔다가 내무부 재정과로 가서 일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종로세무서 하면 알아줬어요. 종로에는 상인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세무서 일이 복잡해요. 그만큼 생기는 돈도 있어, 지금 생각 해 보면 서너값 같은 것은 늘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번서기 할 때부터 회계나 재무 담당을 해서인지 그때도 재정과 일을 주로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 행정관서들이 정리되면서 세무서 재정 관계 일들이 지방청으로 갔다가 재정과로, 다시 내무부로 갔다가 재무부, 그리고 내무부로 다시 업무가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업무 이동이 많으니까 당연히 부서 이동이 많았고, 그러다가 내가 어디로 발령이 났나 하문 전라남도 보성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도 근무 성적이 좋다고 과장 자린 주지만 태어나서 평양간 거 말고는 경기도하고 서울을 벗어 난 적이 없는데 보성으로 내려가라고 하니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 우선 나만 보성으로 내려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 잘 될라고 했는지 동생이 모 국회의원 영어 개인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동생이 그 사람한테 가족도 있고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데 사태가 이렇게 됐다고 부탁을 해서 다시 올라오게 됐지요. 그게 아마 보성에서 근무한 지 두 달만인가 그랬어요.”

소위 말하는 뺨이라는 것 때문에 권태웅씨는 지방 생활을 빨리 청산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 올 수 있었지만 근무처는 세무서가 아니라 고양군청이었다고 했다. 당시의 세무서 근무는 촌지가 적지 않았다고 했는데, 받는 봉급보다 촌지가 더 많은 달도 있었다고 하니 그 규모들이야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그때쯤이 권태웅씨의 나이가 사십이 넘어 중년기에 접어들 때였다.

6) 장년 시절

전남 보성에서 올라와 지금의 고양시 원당동에 고양군청이 신축되고 있을 때, 그 곳에서 근무를 하던 권태웅씨는 다시 경기도청으로 근무처를 옮기게 되었다.

“보성에서 올라오니 고양군청으로 가라고 해요. 당시는 고양군청이 동대문에 있

었는데, 그때 지금 고양시 원당동에 군청을 막 신축하고 있었어요. 혁명이 난 직 후라 군인 출신들이 도지사나 군수를 막 하고 있을 텐데, 그래 군청에서 한 삼 년 근무를 하고, 다시 경기도청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때는 경기도청이 서울의 광화문에 있었어요. 그 앞에 빨간 이층집이었는데 지금은 헐리고 없어졌어요. 그래 다시 식구들과 서울로 이살 와서 한 몇 해 다니니까 내무부에서 경기도청은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고 수원으로 도청이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 경기도로 이사들은 쉽게 못하고, 도에서는 사람들이 출근을 해야 하니까 통근 버스를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경기도청에 근무를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5·16혁명이 나고 한참 후니까 1963년은 넘었네요. 도청에서도 주로 재무과에 근무하다가 나중에는 이재계장을 했어요. 이재계장은 도청의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무서니 재무니 하는 것들을 많이 알아서 그런지 그런 걸 시켰어요. 그때쯤 대통령 표창도 받고 내무부장관 표창도 받고 했는데, 작년에 물난리 나면서 살림살이가 다 뒤집어져서 지금은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996년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 일대에 쏟아졌던 집중호우로 차탄천 둑이 터져 한탄강 물이 불고, 그 물이 임진강에 더해져 권태웅씨도 보지 못했던 큰 물이 강을 빠져나갔는데, 그때 지금 사는 집의 안방에도 어른 키만한 높이로 물이 들었다고 했다. 그때 잃어버린 것은 표창장뿐만이 아니라, 권태웅씨가 수년 동안 수집해 놓았던, 옛날 고랑포를 비롯한 장남면 일대의 사진들이어서 더욱 안타깝다. 권태웅씨가 받은 표창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근무 성적이 좋다고 고양군청에 근무할 때인 1963년에 대통령 표창 29548호를 받았고, 마찬가지로 경기도청에 근무할 당시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다 그는 경기도청에서 정년 퇴직을 맞이했는데, 22살에 공무원을 시작해 꼬박 38년을 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한다. 그것도 근대사의 격동기 모두를 공무원 생활을 하며 겪은 그에게 감회를 물어 보았으나, 별 다른 감회보다는 “공무원이야 나라에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하면 그만이지, 뭐 별 다른 감회가 있겠냐.”고 하시며 대답을 대신했다. 그의 장년기는 그나마 무난했던 시기였던지 공무원 생활 충실히 한 것 빼고는 별 다른 변화가 없었다. 정년 퇴직을 하고선 곧장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서울의 갈현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건 퇴직 후에도 개인 집안의 재산 관리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이었다.

“지금 거기에 큰 호텔이 들어섰는데, 옆에 돌 깨는 산이 있었는데 거기다가는 아

파트를 지었어요. 홍은동이라고 광화문에서 오자면 서대문 지나 무악재 넘으면 있는 동네예요. 그 곳에 당시는 누동궁이라는 궁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대단하게 컸지요. 그 집에서 자기네 재산을 관리해 달라고 사모님이 직접 저를 찾아 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날 찾아왔나 하든, 세무서 생활을 첨에 서대문에서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이 집의 어른이 돌아가서 상속세를 내게 됐는데, 그 담당이 저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세금은 공정하게 매겼는데, 그걸 일년 안에 한꺼번에 갚게 한 것이 아니라 3년에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었고, 그때는 특히면 세무 조사를 다시 하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없도록 했었어요. 그 집 아들이 그때 미국하고 스웨덴 가서 공부하고, 청와대 정무비서관 하던 이우영 씨였나 봐요. 아마 철종대왕 집안인데 자세히는 몰라요. 난 그 사람은 잘 모르고, 그 사람의 어머니가 친선대 지랑 나이가 비슷했어요. 그 양반이 나중에 절 찾아와서 일이 그렇게 된 거지요.”

지금 스위스그랜드호텔이 들어 선 자리가 권태응씨가 이야기하는 누동궁이었고, 그 옆에는 징원여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도 권태응씨가 재산 관리를 할 당시에 지은 것이라고 했다. 그가 재산관리를 맡은 집의 재산은 누동궁이 자리한 곳에서부터 응암동으로 이어지는 백련산 전체였다고 하니 재산의 규모를 가늠할 수가 없을 지경이지만, 권태응씨가 재산관리를 하면서 주인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땅을 찾아 주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 권태응씨는 전국 읍·면을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녔다고 한다. 그 덕에 지금 일산의 마두동에 흩어져 있던 땅도 찾고, 경기도 포천에서 수만 평의 땅을 토지대장을 뒤져 찾아내고 나서, 그 땅에다 조립 사업을 직접 했었다고 한다.

또, 땅이 워낙 넓으니까 하루에도 무허가 건물이 수 채씩 생겨나 그것만 전담해서 처리하는 일꾼을 셋을 두고 있기도 했다는데, 그들은 아침부터 그집 소유의 땅을 순찰을 돌아 무허가 집이 생기면 철거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지내며 그 집안 땅에 대한 도면도 만들고 했는데, 그 집에서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수입은 없으니까 상당한 땅을 국가에 헌납해 버려 일도 줄어들고, 한 사오 년 하니까 힘이 들어 그만 두었다고 한다.

“한 사오 년 그 집에서 놀고 먹었지요. 일이라고 해야 어디 공무원 시절보다야 힘들었겠어요. 편하게 일하고 돈도 많이 받고, 그래서 더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먹고 사는 게 편해지니까 내가 좀 해이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하니, 지금 응암동 쪽에 시립 정신병원 있는 곳에다 땅을 60평 주며 수고했다고 해

요. 그래 거기다 집을 지었어요. 현대식으로 아주 좋게 지었는데, 이게 걸모양만 번지르하지 속이 다 물러 터져 비만 오면 물이 줄줄 새고 그랬어요. 집이라는 게 처음 질 때 잘 지어야지, 그걸 나중에 아무리 고칠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골치를 썩고 있는데 돈벌이도 없고 식구도 많아 생활도 어렵고 그러니 그 집을 팔고 불광동 성당 있는 골목 안에 국민주택으로 이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돈을 못 버니 경제난이 왔어요. 그래 다시 그 집을 팔고 갈현동에 오두막집 비슷한 데로 이살 했지요. 생활비도 없으니 자꾸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식구들이 먹고 살다가 다시 이살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 갈현동에 있을 때는 남동생이 생활비를 내다시피 했어요. 남동생이 그때는 돈이 조금 있었는데, 차라리 그렇게 지낼 바에야 고향에 선산도 있고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시니 산도 돌보고 땅도 돌볼 겸, 검사검사 고향으로 다시 들어가 사는 게 어떠냐고 동생이 권하고, 집도 새로 지어준다고 해서 1980년에 고향으로 돌아 온 거죠.”

전쟁이 끝나고 처음으로 고향에 발을 디딘 것은 5·16이 난 이듬해 였다고 한다. 부모님들만 미리 들어 오셨다가 몇 년 계시지 못하고 다시 나왔다가, 1966년에 재차 들어 왔다가 다시 나갔다고 한다. 두 번째 들어 왔을 때 둘째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그 둘째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차라리 나이든 권태웅씨가 들어 왔었으면 어땠을는지 모르지만 혈기 왕성한 젊은 사람이 이런 곳에서 견디기는 힘들었을거라고 회상했다. 둘째는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데 농사일도 힘들었겠지만 민통선지역에 사는 것이 더 힘들어, 소를 사주면 그걸 팔아 술을 마시고 농사일도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후 권태웅씨가 1980년에 들어온 것이 세 번째였다고 한다.

처음 입주할 당시 전쟁 전에 있던 집은 폐허가 되고, 처음 살던 곳에서 산 아래로 내려앉은 곳에 이주단지처럼 집이 지어져 있었다고 한다. 권태웅씨네 집도 그 곳에다 지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동생이 파주의 파평면 장파리 강건너에 있는 민통선 안쪽의 동파리에서 나무를 베다 파는 일을 하고 있었고, 공사판 사람들을 많이 알기에 집을 지어 주겠다고 해 시작했다가 동생이 사기를 당했던 모양이었다. 그래 집을 짓다가 더 이상 못 짓고 버려두다시피 했던 것을 들락날락 하면서 손을 보고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아 완공해서 1980년에 재입주를 한 것이라고 했다.

7) 노년 시절

권태웅씨는 다시 마을로 들어오고선 마땅히 할 일이 없어 농사를 시작했다고 한

다. 처음엔 농협에서 용자를 얻어 노타리버섯을 했다고 한다.

“마을에 다시 들어오니까 좋지요. 그래도 고향은 고향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 딱히 할 일이 마땅찮아요. 그래서 논농사나 밭농사는 힘이 팔려 못하니까 그것보다는 수월하고 수입도 좋은 뭔가를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뜻이 맞는 이웃집들하고 해서 다섯 집이 어울려 각각 농협에서 용자를 오백인가 육백을 얻었어요. 나도 혼자 힘이 팔리니 일꾼도 두고 환풍시설하고 습도조절시설까지 하고 해서 한 삼십 평 정도를 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예요. 책 보고 또 지도조사 사람들이 나와서 가르쳐 주곤 하긴 했지만 농사가 다 책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이 제대로 생산되지도 않고, 또 나온다 해도 좋은 물건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삼 년인가 만에 다 손해를 봤어요. 몽땅 날렸지요.”

권태웅씨는 고향으로 다시 들어오기 전에 농림부를 찾아다니면서 밭으로 되어 있던 소유 땅을 모두 논으로 형질변경을 하고 왔다고 한다. 다른 집들도 이미 그렇게 했었고, 밭농사해서 소득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논으로 바꾼 것이라고 한다. 다행히 이 지역은 토지대장이 명확하게 남아있어 토지분쟁은 없었지만, 인근의 연천군 군남면이나 중면 같은 경우는 삼팔선 이북을 수복한 경우라 토지대장이 남아있지 않아 토지분쟁이 심했던 지역이다. 그렇게 형질변경시킨



권태웅氏 부부

권태웅씨의 소유 토지는 1980년 입주 당시 모두 4,000평이었다. 처음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누동궁 집을 그만둔 후부터 농지를 팔아 가계자금으로 쓰고 해, 입주할 당시는 농지가 반으로 줄어 있었다고 한다.

지금 현재는 논이 3,600평, 밭이 200평 정도라고 한다. 권태웅씨가 직접 경작을 하는 건 아니고, 밭에다가는 집에서 먹을 채마나 심고, 논은 한사람한테 모두 소작을 쥐서 경작하는데, 일년 소작료는 벼로 34가마를 받는다. 60kg짜리 34가마를 받으면 10가마는 권태웅씨 부부의 양식으로 남기고, 4가마는 아이들한테 한 가마씩 나눠주고, 현금도 좀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20가마는 수매가 기준으로 해서 돈으로 받는다고 한다. 그 돈으로 일년을 사는데, 아무리 팔순 노인네들 살림이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닐텐데도 권태웅씨는 1994년에 회수(喜壽)를 맞아 고향을 위해 좋은 일을 하기도 했다.

“내가 젊었을 때 면에 댕겼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보니 우리 면이 장단이었는데 지금은 연천으로 돼 있고, 장남면이 없어지고 백학으로 행정 개편이 됐다가 다시 장남으로 이름을 되찾고 복잡하게 그랬다 말입니다. 그러니 면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없어요. 또 민통선하고 휴전선에 가차이 있으니 뭐 하나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들려고 걱정했는데, 그래 봐야 전쟁 나기 전까지 일이지, 그 다음 일은 나이가 들어 하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권태웅씨가 만든 책은 『長南面(高浪浦)의 뿌리와 郷土文化』라는 것인데, 그가 면서기를 시작할 무렵인 해방 전에서부터 한국전쟁까지 장남면에 대한 많은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축소판 ‘면지(面誌)’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책은 500부만 찍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전쟁 이후에 다시 들어와 줄곧 살아온 이들도 있지만 전쟁이 지나가고 난 다음의 고향은 사람만 떠나간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동시에 사라져 버려 안타까웠다고 하는 권태웅씨는 77세의 나이에 노익장(老益壯)을 과시한 셈이다.

“안타까웠어요. 우리 마을에는 유적지도 많고 풍광도 수려해 옛부터 명승지로 소문이 났던 곳인데 지금은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면의 일부가 비무장지대 속으로 들어가버리기까지 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요. 지금 저 일본 대사관에 다니는 서윤하씨라고 있어요. 그가 지금은 모래네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몇 해 전부터 탄원서를 들고 다녀요. 그 사람 고향이 반정린데, 거기도 농사일로만 출입하지 사람이 입주해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은 이제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으니 입주해서 살게 해 달라고 정부에다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 것들 보고, 또 마을 사람들이 옛날 일을 모두 잃어버리고 살고 이주해 온 사람들도 많고 하니 마을이 뒤숭숭해요. 그래서 우리 마을이 예전에는 무엇을 하고 살았고, 몇 명이나 살았고, 학교는 몇 개가 있었고, 명절에는 어떤 놀이를 하고 살았나 하는 것을 기억나는 대로 모으고 자료도 찾고 그랬지요. 옛날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살고 있어, 일일이 그런 사람들 찾아 댕기면서 얘기들을 모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모두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잘 기억들을 못해요. 고향에 조금 더 빨리 돌아와서 했었어야 되는데, 나도 먹고 살기 바쁘고 하니 못 그랬어요.”

권태웅씨는 그 외에도 젊은이들이 잘 모르는 『축문서식집(祝文書式集)』도 냈는

데, 예전에야 어른들이 계시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젊은 사람들이 직접하게 되었을 때 글 하나 제대로 못 쓰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다 필사본으로 그걸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던 중 연천군 노인회에서 책으로 만들자고 해 소책자로 꾸렸다고 한다.

“동네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대로 되는 게 별반 없었어요.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이 적고, 전쟁 중에 죽어 나간 사람들도 많으니 부재자 농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땅도 경작을 하고 그래서 농토는 부족하지 않아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게들 살고 있는데 집안에 일이 생기면 그걸 잘 못해요. 어른들이 많이 안 계셔서 그런지 제사 지낼 때 절하는 거 말고는 지방(紙榜)도 하나 못쓰는 집이 있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사십구 일만에 탈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안되겠다 생각했지요. 시골에는 아무래도 교육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엉터리로 써 놓은 경우가 많았어요. 나는 아무래도 유교사상에 가까이 있고, 어릴 때 집안 어른들이 벼슬은 안했어도 글을 좋아 하셨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축문(祝文)이나 이런 거에는 밝았어요. 나도 모르는 거면 또 공부를 해야 하니까 어렵겠지만 이미 알고 있는 거어서 할 일도 없고 소일 삼아 써 준게 사람들이 보고는 기왕이면 제대로 해서 각 가정에 나누어주자 해서 그래 된 거지요.”

15세에 결혼한 권태웅씨는 2남 3녀의 만이로 남동생 하나와 여동생 셋이 있었는데, 남동생은 이미 죽고, 여동생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다. 권태웅씨 슬하에는 5남 2녀를 두었는데, 모두 장성해 살림들을 차렸지만 막내만 출가를 시키지 못하고 있어 안쓰러워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둘째딸만 빼면 모두 서울이나 고향 인근에 살고는 있으나 자식들이 모두 재정적으로 넉넉지 못한 살림을 하고 있어 그게 또 안스럽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고향집에 부인과 같이 살고 있는데, 노인정 가는 일과 보건소에 부인을 데리고 가는 일 등이 권태웅씨의 주요한 일과라고 한다.

8) 신앙생활

권태웅씨는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큰아들이 서울의 불광동에서 목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건 자신과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뭐 축문 책이나 만들고 있고, 아무래도 유교 사상을 중시하거든요. 부끄러

운 이야기지만 큰아들이 서울 불광동에 있는 성결교회 목사예요. 그런데도 난 교회를 가지 않아요. 아들이 몇 번 권하기도 했었지만, 종교는 자유니까 내 죽을 때까지는 나대로 할 테니까 너는 너대로 하느님을 믿고, 난 나대로 이렇게 살자 그랬어요. 부자지간이라고 종교가 다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쟁전 장남면에는 고랑포 남쪽에 석불암이라는 암자가 있었으며, 고랑포에는 감리교에 속하는 교회가 있었으나, 권태웅씨와 그의 부인은 지금껏 교회나 절엘 다니질 않았다. 동네에서 굿을 해도 먼 발치에서 쳐다볼 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부군당이 있어 3년마다 한 차례씩 크게 마을굿을 벌였는데, 한국전쟁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굿판이 열리질 않았다고 한다. 물론 부군당도 없어졌고 당나무만 남았는데 그도 볼품없이 죽어 형체만 남아있다. 노인정 앞에 있는 큰 뽕나무가 당목이었다고 하는데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지경이었다. 또 원당리에서는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가을걷이가 끝나면 집집마다 떡을 해서 서로 돌려먹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정도는 권태웅씨도 함께 한다고 했다. 앞으로도 교회나 절에는 다닐 의향이 없고 유교적 제의에만 충실할 것이라고 한다.

9) 사라진 ‘고창굿’

고랑포리는 1934년까지는 관송리로 불리던 곳으로 웃고랑포인 자지포, 가운데 고레이라 불리던 중고랑포, 아랫 고랑포와 세곡동, 육동의 여섯개 마을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권태웅씨가 살던 원당리와는 바로 이웃한 곳이었다. 또한 장남면의 면사무소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며, 권태웅씨가 12회로 졸업한 고랑포초등학교가 있던 장남면의 중심지였다. 장남면에 속한 각 마을마다 부군당이 있고 굿이 벌어졌지만, 이곳 고랑포에서 벌어진 굿의 규모는 경기 북부 일대에서는 소문난 것이었다고 한다. ‘고창(高昌)굿’이라 불리던 고랑포의 굿은 3년마다 열렸다고 한다.

“고창굿은 대단한 굿이었어요. 인근 지역에서 굿하는 날이 되면 며칠씩 고랑포에 와서 구경을 하고 가고 그랬어요. 보통 정월 10일째부터 굿을 준비해서 2월 10일께 좋은 날을 잡아 굿을 했어요. 나야 별 관심이 없어 직접 일을 하거나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워낙 큰 행사였고, 내가 또 면에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고창굿은 향례제라는 것과 수신제라는 것으로 행사를 했는데, 그걸 준비하는데만도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무동이나 취군이라는 게 있었고, 50명 정도되

는 장정들이 그 부동들을 어깨에 올리고 취군들 풍물에 맞춰 춤을 추는 걸 연습하고 그랬어요. 하루종일 하는 건 아니고 틈 날 때마다. 겨울이니까 농한기라 바쁜 일들이 없으니까 모여서 하곤 그랬어요. 무동은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했는데, 너무 어렵고 안되고 너무 커도 안되고 해서 열다섯을 전후한 아이들 중에서 땡기머리를 길게 땀 아이들을 골랐어요. 무동은 전부 13명 정도였는데, 여덟은 여자아이로 팔선녀(八仙女)라고 했는데 이들은 개성의 권변에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다섯은 오동자(五童子)라고 해서 마을의 사내아이들한테 색동옷을 입히고 그랬어요.”

당시에 팔선녀로 활동했던 이들이 아직 서넛 정도 생존해 있으나, 그들 모두 어린 시절 일이라 당시의 일들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권태웅씨는 파주시에 살고 있는, 팔선녀를 했던 김모씨를 만났으나 70이 가까운 나이여서 드문드문 기억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고창굿은 항례제(恒例祭)를 먼저 치르는데, 고랑포의 임진강변 절벽 위에 있는 부군당에는 마을 수호신인 여신(女神), 즉 지진신(地鎭神)이 모셔져 있었다고 한다. 평소에도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하면 마을 사람들이 찾곤 했던 부군당에서 무녀가 주재하는 항례제를 치르는 것으로 굿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엄숙한 제의가 끝나면 상좌 무당 2명이 말을 타고 웃 고랑포에서 아랫 고랑포에 있는 남신(男神)을 모시러 갔는데, 이때의 행렬이 당시에는 장관이었다고 한다.

“무당들이 말을 타고 아래 고레이로 가면 그 뒤로 농악대하고 무동들이 뒤를 따르며 춤을 추었어요. 무동들이 장정들 어깨 위에서 이리저리 춤을 추는데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난리였어요. 그 뒤로는 깃발들이 따랐는데 오색기가 끝도 없이 펄럭였어요. 고랑포장에 있는 상가에서 서로 돈을 내서 깃발을 만들었는데, 색색으로 만들었어요. 길이가 고개를 쫓히고 한참을 올려다봐야 했으니까 삼사 미터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깃대들이 사오십 개가 색색으로 있었으니 장관이었지요. 그 행렬이 앞장서면 뒤로는 장남 사람들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그 주변으로는 행상들이 말도 못하게 몰려들어 장사를 하곤 했어요. 그 와중에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많아 미아 보호소도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아래 고레이에 있는 남신에게로 가서 다시 한바탕 놓고 남신을 모시고는 웃고랑포로 돌아왔지요. 무당들이 아래 고레이 부군당에서 남신을 모시는데 동안 취군들하고 놀이패들은 고랑포 공궁다리 옆에서 신나게 노니 사람들 흥이 절로 났던 것 같아요. 말로야 이렇게 밖에 못하지만, 그때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

면 마을이 들끓었던 것 같아요. 개성이나 고양, 철원에서도 사람들이 구경오고, 사람들이 그래 모이니 장사꾼들이 오죽했겠어요. 동네가 굿이 벌어지기 하루나 이틀 전부터 북적거리기 시작해, 굿이 끝나도 그 여파가 하루나 이틀 정도 갔으니 까, 굿은 이틀낮 사흘밤을 했지만 실제로는 일주일 정도가 흥청거렸어요.”

당시 고창굿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나라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각출해서 걷었고, 그때그때 경기에 따라 비용의 많고 적음이 결정되었는데, 대개 굿을 한번 치르는 데 1932년 기준으로 7~8백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권씨가 이 고창굿을 다른 것과는 달리 상세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회수 기념으로 냈던 책의 취재 과정에서 당시 생존해 있던 아랫 고랑포의 유인철씨(오동자 역할)와 과주에 살던 팔선녀 역할을 했던 김모씨, 원당리에 살던 이종만과 유해철씨 등으로부터 구술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권태웅씨의 기억과 그들의 구술을 종합해 고창굿에 대한 기억은 거의 완벽하게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아래 고레이에서 무녀들이 남신을 모시고 다시 웃 고랑포로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웃 고랑포 부군당에 다시 도착하면 서너평 정도되는 부군당에 신들을 모셔 놓고 본격적인 굿판이 벌어지는데, 열두거리 굿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 이틀밤 사흘낮을 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은 강가로 내려가 수신제(水神祭)를 지냈는데 이게 또 재미있었어요. 사람들은 석벽 위에 서서 구경을 하는데, 고랑포 나루터에서 무당들이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로 나가요. 그리고는 큰무당이 허리에다 무명천으로 줄을 묶고 한쪽 끝은 배에다 묶어요. 그리고는 강으로 수차례 뛰어 들었다가 나오곤 했는데, 그건 강을 끼고 살고, 특히 고랑포는 강이 마을 생업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으니, 수신을 달래는 행동이었다고 그래요.”

고랑포는 앞서 기술한 대로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서 수운(水運)과 육운(陸運)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그래서인지 농업보다는 상업과 운수업이 크게 번성했던 곳이다. 그러니 자연히 물을 관장하는 신에게도 제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흥하던 굿판이 벌어지지 않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말부터였다고 권태웅씨는 기억하는데, 해방 후에 한차례 더 고창굿이 있고 난 뒤에는 삼팔선으로 장남면이 둘로 갈라지고, 다시 한국전쟁으로 휴전선으로 마을이 갈라진 것이 고착화되면서 더 이상 고창굿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남면의 판부리 일대는 해방과 함께 삼팔선과 한국전쟁으로 만들어진 휴전선이 유일하게 교차하는 지점이다. 판부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삼팔선보다 휴전

선이 남쪽으로 내려왔고 동쪽으로는 휴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간 것이다. 그러니 이곳은 해방과 동시에 갈라진 마을이 지금껏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고랑포지역은 장남면의 몇몇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입주해 살 수 없는 지역이며 출입영농만 허용되어 있다. 바로 그 점이 이 고창곳이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 곳판에서 신명나게 놀았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으니 재현할 수 있는 근거도 가지지 못하고, 인근한 원당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관했던 곳이 아니었으니 마음으로써 그리워하지만 주체적으로 나서질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고창곳에 관한 이야기는, 문화의 해체란 곧 그 문화를 생성했던 인간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과 해체 과정의 단점이 단적으로 잘 드러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강원도 강릉에 가면 아직도 단오곳이 성대하게 열리잖아요. 그걸 언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내가 나중에 비교해 보니 여기 곳도 그 못지 않았어요. 그런데 강릉은 아직까지 계속되지만 여기는 이제 없어졌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나야 뭐 그 정도로 조사해 놓은 것만 할 수 있지. 내가 그걸 다시 할 수 있는 재력도 없고 기운도 없어요. 삼팔선으로 나라가 갈라지지만 않았어도 지금도 고창곳이 열리고 그럴 텐데…….”

권태웅씨 자신은 유교를 믿는 사람이라 곳이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적었다지만 책을 만들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고 했다. 종교야 다르지만 지역에서 벌어진 문화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걸 되살리고 싶다는 소망을 강하게 비추기도 했다.

10) 민통선

전쟁 이후 원당리는 42년 동안이나 민통선 안쪽에 속해 있는 마을이었다. 권태웅씨의 기억에도 처음엔 어디서부터가 민통선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데, 임진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괜찮았지만 북쪽은 민통선구역이었다는 기억만 하고 있었다.

“처음에 여기는 말도 못했어요. 사람 살 데가 아니라고 해야지요. 그런 데를 들어와서 마을을 다시 만든 거나 다름없어요. 발인지 논인지 포탄이 얼마나 떨어졌으면, 뭐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지뢰나 불발탄에 몸 다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숏했고, 그렇게 해서 정착을 한거예요. 우리들이야

뭐 처음에 우리 땅에 들어와서 농사짓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내 땅에 내가 가는데 누가 막아요. 그런데 여기가 휴전선 바로 아래니까 통제가 심해요. 많이 불편해요. 제일 불편한 거는 출입이 자유롭지 않으니 그게 제일 크고, 여기 살다보면 우리들은 휴전선이 가까운지 어떤지는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사람들이란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것들이니까, 자기 사는 데만 열중하지 잘 모르게 돼요. 다 저 불편한 거만 생각하는 거지요. 다른 데를 보문 원래 그 동네 주민들이 아닌 곳이 많이 있어요. 연천 중면에 삼곶리나 황산리 같은데요. 거기도 여기처럼 임진강변 마을인데, 그 동네는 해방될 때 삼팔선 이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다시 마을을 만들고 사람들을 입주할 시켰단 말예요. 그런데하고 여기는 다르게 봐야지요. 그런데는 자기들이 그 안에서라도 살아야 할 환경이니까 원주민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들어갔지만, 이 동네는 거의가 원주민들이었다 말이지요. 전쟁 전에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다가 갑자기 민통선이다 뭐다 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농지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했으니 불만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인제 민통선이 터지고 나니 좀 괜찮아요. 그나마 북으로는 몰라도 남으로는 숨통이 터졌으니까 인제는 잘 되겠지요. 예전에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면 나이퉁다리에 있는 초소에서 검문 당하고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이 동네 사람을 찾아 왔으문 초소에다 이야길 하고 자동차 트렁크니 이런 데를 다 조사 받고 들어 왔어요.”

처음에는 ‘귀농선(歸農線)’이라 불리던 민통선은 ‘민간인출입통제선(民間人出入統制線)’의 줄임말로 민간인 통제구역을 형성하는 선이다. 흔히 비무장지대라고 부르는 곳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해서 모두 4km의 공간인데, 그 비무장지대를 형성하는 남쪽 선, 즉 남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비무장지대가 되는 것이고, 남쪽으로는 일정 공간이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이 되는 셈이다. 그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선이 바로 민통선이 되는 것이고, 그 지역으로의 출입은 허가받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구역의 설정 목적은 안보 유지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군사적 이유가 전부라 할 수 있다.

현재 민통선 구역은 서에서 동으로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있는 접적지역을 따라 인천광역시의 강화군과 경기도의 파주와 연천군, 그리고 강원도의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그리고 고성군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2개시와 2개도에 걸쳐 6개 군, 24개 읍·면 정도가 민통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그 면적은 수시로 변하게 되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대략적으로 서쪽이 동쪽보다는 산악 지형이 없기 때문에 민통구역이 좁은 반면 동쪽으로 갈수록 산악 지형의 지리적 특성

상 민통구역이 넓어진다. 처음 귀농구역이 설정될 당시에 서쪽은 남방한계선을 기준으로 5km되는 지점에 선을 그었고, 반면에 동쪽은 약 20km되는 지점까지 귀농 구역으로 구획되었다.

이 민통선은 휴전선 일대의 방어 임무를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이 맡고 있을 때인 1954년 2월 3일에 미8군 사령관의 직권으로 설정되었다. 처음 이름을 '귀농선'이라고 했는데, 이는 다시 돌아와 농사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고래로 농경 민족이어서 땅에 대한 대단한 소유욕을 지닌 민족이다. 전쟁으로 나라가 갈리고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졌어도, 땅으로의 회귀 본능은 무엇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휴전선 인근에 경비가 아직 허술할 때 주민들은 내 땅에 농사지으러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테고, 미군들은 그런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려 만든 선이 귀농선이다. 그러나 귀농선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군인들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다 한국군이 휴전선 인근 지역에 대한 경비를 맡은 1958년 6월부터 군작전과 보안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는데, 이때 '귀농선'이 '민통선'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다.

그 후 민통선의 직접적인 통제권을 한국군이 완전하게 이양받은 1959년부터 민통선 북방지역에 마을들이 생겨나면서 영농이 가능해졌는데, 그 마을들의 이름은 각기 자립안정촌, 재건촌 그리고 통일촌 등의 명칭으로 불리웠으며, 이를 통칭해 '민통선 북방 마을'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을들은 잠재적인 토지의 이용으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북측에서 휴전선 인근에 만들기 시작했던 선전촌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민북지역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는 휴전선의 파생지역으로서의 분계지역(分界地域)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지역(限界地域), 그리고 보전지역(保全地域)의 특성을 보여준다. 휴전선이 남북한간의 분계로 존재한다고 본다면, 민북지역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인접지역(隣接地域)이므로 분계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의 생활이 직접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영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다.

휴전선을 정치·지리적인 산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양대 이념이 충돌과 마찰을 일으키며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념적인 경계선일 것이다. 이것은 서로에게 적대성을 띠는 두 압력간의 첨예한 일시적인 균형선

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잠정성(暫定性)을 지니고 있는데, 국경을 형성하는 요인이 힘이라고 본다면, 그 잠정성이라는 것은 아직 국경은 아니지만 힘에 의해 형성된 경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인 힘의 변화로 인해 영원한 국경으로 고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일반적인 한계지역의 특성을 본다면, 자연자원의 빈약함과 지리적인 고립성, 낮은 인구밀도와 저조한 생산성 및 이용도, 그리고 근대적 시장체계와의 불연결성 등을 들 수 있다. 민북지역의 경우 출입통제와 정책적인 입주로 인해 낮은 인구밀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출입절차와 통제로 인한 고립성, 그리고 개발을 위한 공식적 제도와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은 점, 근대적 시장체계가 민북지역 내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도 한계지역의 특성이 유감없이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역으로서의 민북지역은 앞서 기술한 두 가지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데, 분계지역과 한계지역으로서의 민간인 출입통제와 개발의 억제로 인해 생태계가 긍정적으로 보전된 것이다. 민북지역 이외에서의 무분별한 개발과는 달리 철저한 토지정책과 출입통제로 인해 자연자원이 그나마 보전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민북지역은 분단이 낳은 사생아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정치·경제 혹은 군사적 입장이 아닌 문화적 입장에서 이 지역을 본다면, 황무지나 다름없는 지역이며 자생적인 토속문화의 유지·계승은 꿈꿀 수 없는 곳인 셈이다. 그나마 비무장지대에 비해서는 나은 환경을 지닌 민북지역에서도 우리 고유문화나 세시풍속 혹은 민간 전래의 민속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볼 수 없는 지경인데, 사람이 전혀 살고 있지 않는 비무장지대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어쩌면 그 곳은 우리 문화의 공동지대(空洞地帶)로 남을지도 모를 일이며, 문화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권태웅씨는 아직 분단 1세대들이 남아있는 시기에 민북지역 및 비무장지대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조사가 진행되어 잃어버린 문화들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노쇠하여 더 이상 일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 했다.

2.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안병석씨의 생활사

1) 마을 개관

안병석씨가 살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는 한때 어업과 농업이 반

반씩 이루어지는 반농반어촌이었으나 지금은 어업이 거의 퇴조하여 농업을 주로 하며, 여느 농촌답지 않게 100여 호에 달하는 농가가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안중에서 아산만 방조제로 향하는 왕복 4차선 39번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비껴 들어 사오십년생 소나무가 줄지어 선 얕은 고개를 넘으면 왼쪽 편으로 서낭당이 보이고, 아늑히 자리잡은 마을이 나타난다. 장수리는 본래 산넘어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두메'로 불리었는데, 장수리라는 명칭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1972년 2월 6일의 일이다.

“원래는 두메, 두메 산골이라 했는데 썩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동명을 개명을 시키자 해서 동네서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장수리'라고 정할 적에, 이 동네 뒤쪽에 긴 보(湫)가 하나 있어요. 바닷물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데, 그 보가 길고 물이 왔다 갔다 하나까 '긴 장(長)'자에 '물 수(水)'자를 써서 장수리라 했지. 그게 아마 한 이십 년 전쯤이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2) 조상

안병석씨는 본디 장수리와 인근한 덕목리에서 1924년 1월 23일에 태어났다. 고려의 충신인 두문동(杜門洞) 72인 중의 한 분인 공어촌(孔魚村) 선생이 온거하며 살기도 한 덕목리에서 순홍안씨 문성공파 16대 손인 안만순씨와 장순덕씨 사이에서 삼남매의 맏이로 태어났지만 덕목리에서 살지는 않았다고 한다.

3) 부모님

부모님에 대한 질문에 안병석씨는 “정확히는 모르겠어. 이러면 어른들 욕보이는 것이기도 할테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정확히 언제 나고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백십이삼세 쫓이고, 어머니가 백사오세 정도는 됐겠지, 어머니는 내가 스물여섯 나던 해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서른한 살 때 돌아가셨으니, 일찍들 돌아가서 그런 거 한번도 생각 못해보고 이래 살았어…….”라고 한다.



안병석氏

4) 유년 시절

안병석씨의 아버지는 어업을 주로 하셨는데, 평택보다는 화성쪽에서 주로 배를 탔다고 한다. 한 군데 정착하는 법이 없이 화성에서 인천까지를 오르내리며 생활한 덕에 유년시절에 화성의 팔탄면 석포리로 옮겨가 살았는데, “사실, 우리 아버지가 술 좋아하시고 주색 좋아하시고 어업도 제법 큰 어업을 하셔서 인천에서 화성까지는 안방 드나들듯이 내집으로 알았으니 나라고 별수 있었겠어요. 아마도 인천에서 화성까지 바다 끼고 있는 술집들은 우리 아버지를 모르는 술집이 없었을 정도였으니까 말ियो. 당시에는 모두 어려웠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집안일 잘 안 돌보시고 그러니 특히나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학교도 열 살이나 돼서 갔지 아마, 팔탄국민학교였는데 그것도 한 이 년 다니다가 그만 뛴지요. 그때야 시방처럼 나이 맞춰 가지고 학교 들어가는게 아니라 형편되는 대로 다녔으니까 열 살이나 돼서 갔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학교 그만두고 나서는 한 이 년 놀다가 열다섯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뱃일을 거들기도 하면서 어업을 배웠지요. 아마 스무 살 될 때까지 그 일을 했어요.”라고 한다.

안병석씨는 국민학교를 이 년 다니다만 그때가 지금껏 잊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다고 했다. 열 살 이전의 일들은 잘 생각 나지도 않거니와, 밖으로만 도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노릇까지 해 가면서 지냈던 열두서너 살 때는 “내가 나이도 어리지, 그러니 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도 해서 쌀을 팔아 오던지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집이라고 잘 들어 오시지도 않지, 밑으로 동생들이 있었다 말이야, 그러니 내 한계를 느껴서 그런지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자꾸 뭐라도 할려고 하니 까 이집 저집 심부름도 해주고 해서 먹을걸 장만하기도 했는데, 굶는게 더 많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시방도 사람들이 제일로 서러운 것이 부모가 죽어서도 서럽고 동기간이 죽어서도 서럽고 그렇지만, 백 가지 서러움 다 제쳐놓고 배고픈 서러움만한게 있겠느냐 하잖아요. 그때는, 믿지 않겠지만, 하루 이틀 곡기 끓기는게 예사였어요.”라고 회고한다.

5) 청년 시절

청년 시절에 대한 질문에 부끄러운 집안 이야기라며 주저하면서도 “어른 험담하는거 같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기로 했으니 한다”는 안병석씨는 스물한 살 초겨울에 징용영장을 받고 일본 북해도로 갔다고 한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때 안가도 됐을텐데, 그래도 돈푼이나 벌어볼려고 가서 탄광 굴 일을 한 일년 오개월했나, 시간이 그래 가니까 이번에는 징병 훈련영장이 나오더라 말이에요. 그래 같은 북해돈데 삿뽀로에 나와서 두 달은 넘고 세 달은 안되게 훈련을 마치고, 다시 탄광 숙소로 와서 징병 통지서를 기다리는데 해방을 맞이 하게 된거지. 그때는 훈련을 먼저 시켜 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잡아갔거던. 나도 완전무장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해방이 왔지요.”

다행히 징병을 면한 안병석씨가 ‘굴 일’이라고 표현하는 탄광에서 일할 때에는 하루에 열두 시간씩 맞고대로 일을 했고, 일당제이긴 했지만 도급제여서 채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이래저래 굴에 이 년 있었지만 일은 일 년 반밖에 못했어요. 당시에 천원만 있어도 잘 산다고 했는데 내가 나올 때 이천원을 모아서 나왔어요, 큰 돈이었지요. 그런데 부산에 딱 떨어지니까, 돈은 일본돈이고, 이걸 한국돈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한사람 앞에 천원씩만 바꾸어 주고 나머지는 다 회수를 해간다 말이야. 그래서 껍을 내서, 동료들 중에 노름하고 술 마시고 계집질하던 사람들은 한 푼 없이 오는 사람도 있었거던. 그런 사람들에 부탁해서 한사람한테 오백원씩 나누어 줘서 바뀌으면 백원씩 주겠다고 했던 말이야, 그 아까운 놈의 돈을 돈 바꾸는 데 이 백원이나 날린 셈이지요. 그래도 뺏기는 거보다는 나오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찌겠어요, 그래 돈을 바꾸고 나서 하룻밤은 부산에서 자야 하니까 같은 동네서 간 사람 둘하고 같이 국밥 한 그릇 먹었는데, 아, 돈을 30원이나 달라고 하는거야, 내가 갈 때는 잘 해야 50전 정도 했는데, 세월이 지났으니 비싸야 1원 50전 정도 하겠구나 했는데 30원이나 달라니 그만 기가 딱 막히더라고, 밥 한 끼에 30원이나 하는데, 그깟 돈 천팔백원 가지고는 집안을 세우는 데 어림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기가 막히는거지…….”

그때까지도 안병석씨네는 집을 가지고 있지 못했는데, 그나마 안씨가 북해도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집을 장만하였다고 한다. “집 칸 장만하고 가마솔 단지따위 살림 조금 장만하고 나니까 남는게 아무것도 없어. 남 부럽지 않게 살아볼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장만했으니 천만 다행이었다.”고 하는 안병석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본격적으로 어업에 발을 들여 놓은 시기였다. 그러나 그는 어업이라고는 열대여섯에 아버지 일을 거들며 고기잡이를 잠깐 해 본 것이 전부였다.

“그때는 결다리로 허드레 일이나 하고 그랬지, 내가 고기를 잡고 뭐 그런 거는 못 해봤지. 다시 고기잡이 나섰을 때가 내가 스물둘이나 됐지 아마. 그래 한 삼 년 정도 했는데 영 신통치가 않았어. 재미도 못보고 고생만 직싸게 하고. 그러다 동네 아주머니가 중매를 해서 장가를 들었다 말이야. 스물여섯때지. 장가를 봄에, 3월에 들었는데 가을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그때도 아버지대로 돌고, 살기가 참 막막했어요. 그래 겨울에 화성을 떠서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래도 고향이라고 오면 아는 사람도 많고 하니 굶지는 않겠다 싶었던 모양인지, 어머니 혼백을 모시고 돌아왔어요. 그때 전쟁도 나고, 다행히 군대는 안끌려가서 식구들을 돌볼 수는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루 흩어지니까 나도 살 수가 없더라구.”

안병석씨는 초례상에 냉수 한 잔 올리는 것으로 간단하게 결혼을 치뤘고, 가마니 말이니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그의 부인은 해주오씨로서 고향이 장수리인 오순분씨이다.

“내가 이 동네에 들어올 때 쌀 두 말만 전부였지. 식구는 안식구하고 젓먹이 둘하고 전부 넷이 그거 가지고 들어왔지. 처음에는 내가 낳던 덕목리로 갔는데 살붙이가 아무도 없어 못살겠어, 그래 한 일년 살았나. 그래도 여기는 고모가 살고 있었거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고모라도 있으면 의지가 되니까 이 두메로 온거지.”

안병석씨는 두메로 이사와서도 같은 마을에서 너댓 번은 옮겨 다녔다고 한다.

“집 칸이 있나 가진 거라고 정말 불알 두 쪽이 전부데, 농사를 지을래야 땅이 있나 뭐가 있나, 그래도 어업하던 가락은 있었으니까 두메로 와서 본격적으로 어업을 했다고 보면 돼요. 전에도 하기는 했지만 내 배가 아니고 남의 배를 타니 돈도 안되고,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래저래 도움도 얻고 남이 쓰다 버린 배를 한 끼 밥값도 안되는 돈을 주고 끌고 와서 내가 직접 수리를 했어요. 그걸 사기는 산 건데 샀다고 할 수도 없는 돈을 주고 가지고 온거지. 그물 짜는 것도 본 거는 있으니까 이래저래 내가 직접하고, 그래도 내 배 타고 노력한 만큼 버니까 굶지는 않더라구. 그러구 그때는 이 동네서 어업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이 동네서 침으로 고기잡이를 시작한 셈이지. 그때 동네 사람들은 죄다 농사만 했지, 바다로는 나가질 않았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앞 바다로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동네 앞바다는 내가 제일 잘 아는 데라 수입이 괜찮았어요. 결다리로 한

거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봐 온 일이라 일도 어렵지 않고, 그물이나 이런 것도 머물 써서 직접 만드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잡을 수 있었던 모양이라.”

당시 가장 많이 잡혔던 것은 송어였다고 한다.

“송어는 음력 정월을 기준해서 입하 지나고 소만 때까지는 잡았는데, 아마 남한 전부해서 여기만큼 많이 나온 데가 없었다고 하지. 봄 한철에는 전라도니 제주도에서까지 송어잡이하러 이까지 오고 그랬어.”

송어와 함께 꽃게도 많이 잡혔는데, 꽃게는 돈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안병석씨도 마을로 들어와 처음 고가잡이를 할 때는 송어를 중심으로 잡았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자 새우잡이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도 이 바다에 새우가 있는지 몰랐지. 시간이 좀 지나고 새우가 있는지는 알았는데 그걸 잡을 방법이 없는거야, 송어 그물로 해가지고는 새우들이 다 빠져 나가고 어쩌다 좀 정신 나간 놈들이나 한 두 마리 걸리는 게 전부라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라도 여럿이 어업을 했으면 서로 의논해서 머리를 모으고 그랬을 텐데, 내가 서른네댓까지도 이 마을에선 나 혼자였으니 의논할 상대가 없어. 그래 타지로 나가 구경을 하고 와서는 안팎으로는 구멍을 크게 하고, 가운데는 그물코를 작게 삼중망으로 그물을 짰지, 그래 바다에 넣어 놓으니 그물이 터질 지경으로 대하가 잡히는거야, 바다에 돈이 들어 있었는데 그걸 건지지를 못했던 거지. 그 때부터는 송어고 뭐고 봄에는 대하에만 열중했지. 대하는 값이 워낙 좋으니까. 지방에서는 소비가 안되서 내가 종일 잡아 놓으면 안사람이 서울까정 갖고 가서 팔아오고 그랬어.”

이 동네에서는 송어의 성장에 따라 이름을 따로 불렀는데, 새끼는 ‘동어’, 동어가 한 해 지나면 ‘모치’, 그 놈이 또 한 해 더 지나면 ‘송어’라고 불렀다. 송어나 꽃게 그리고 대하 외에는 거물치·강다리들도 나왔는데, 그건 별로 돈이 되지 않아 안병석 씨는 대하에만 열중했다고 한다.

“대하 잡아서 돈 좀 벌고 해서, 마을로 들어온 지 한 십 년 지나서 내 배를 처음으로 새걸로 만들었는데, 이 쪽에는 배 만드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배 만들려면 인천이나 소래, 한강으로 갔는데, 난 한강에서 만들었어요. 지금 서강이라고 부

르는 동네에서 만들었는데, 아직 그 목수 이름도 생각나요. 최창섭이라고 소문난 목순데, 길이가 스물두자, 폭이 여섯자짜리 뱅데 백삼십원 주고 배가 나왔어요. 그때가 내가 서른여섯인가 일곱인가 될 때였는데, 배를 만들어서는 그걸 트럭에다 싣고 이까지 왔지요. 그 놈을 동네다 딱 갖다 놔는데, 그걸 보기만 해도 배가 이만큼은 나온 것 같습디다. 내 생전에 내 배를 처음 만들었으니 세상이 든든했지요. 그때는 이제 동네 사람들도 한두 사람 어업을 할 땐데 어업조합이 생겨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배도 등록을 하고 그랬는데 등록을 할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복을 가져다 주는 뜻으루다 영복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작은 배긴 하지만 영복호 선장이었다 말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이야기지만 안병석씨는 자신만의 새 배를 가진 이야기를 하면서 연신 웃음을 감추지 못한다.

6) 장년 시절

안병석씨는 1977년도에 비로소 자기 집을 지었는데, 아직도 그 집에서 살고 있다. “내가 저 집을 1977년도에 지었어요. 난 아버지한테는 한 마지기, 집 한 칸 못 물려받고, 오로지 건강한 몸뚱아리 그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전부지만,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한테는 집 한칸이라도 물려줘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내 원이기도 했고……. 넓지는 않아도 우리 식구 발 뺀고 자는 데는 지장없이 좋았어요. 건평만 한 사십 평되니 한옥으로는 작은 집은 아니지.”라며 자랑스러워 했다.

7) 아산방조제

배를 장만한 지 십오 년쯤 지나서 다시 집을 장만하고, 고생스럽기는 했지만 순탄하기만 하던 안병석씨의 생계터전인 어업은 그가 집을 지을 쫓은 오십대 초반을 전후해서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위협은 바로 아산만 방조제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이고, 이는 장수리와 인근지역의 자연생태계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오십이 채 안됐을 때지, 아산만 방조제공사가 시작됐어. 공사를 한 이 년했는가 그러고는 바다에 길이 생겼지. 그거하고 비슷하게 남양만도 막기 시작했거

든. 그거 끝나고 나니까 내가 집짓기 바로 전 해에 또 삼교천 막았거던, 그거까정 막고 나니까 고기가 통 안잡히지, 갯벌도 변동이 생기고, 그것들 막기 전에는 앞에 갯벌에서 대합양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들 생기고 나서는 대합이 양식이 안 돼……. 그때부터는 갯지렁이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대합 없어지고 나서 갯지렁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인천 사는 사람이 한번 와서 보고는 그걸 잡아가는데 수입이 웬만히 좋더라 말이야.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도 그걸 잡기 시작했지. 바다 안에서도 고기들이 많이 달라져서 전에는 못 보던, 일본말로 '시라시'라 하던가, 실뱀장어가 많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그건 아직도 돈벌이가 되요. 부피도 작으면서 돈은 많이 되고 그래요. 대합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반지락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요즘까지 캐러다니고들 그래요."

아산방조제는 길이가 2,564m로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서 안병석씨가 사는 평택 현덕면의 권관리를 잇는데, 1971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해 1973년 12월에 완공되었고, 남양방조제는 화성군과 평택시가 경계를 이루는 분향만의 끝을 막았는데, 1971년에 시작해 1974년 5월에 준공되었다. 또 삼교천방조제는 아산방조제의 한쪽 끝인 아산의 인주면 문방리에서 당진의 신평면 운정리 사이로 흘러드는 삼교천 하구를 막은 것인데, 아산방조제보다 긴 3,360m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공사기간도 그것보다 길어 1976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해 1978년 3월에 물막이를 성공하고 1979년 10월에 완공되었다. 이들은 모두 안성천이나 삼교천 하구를 둑으로 막은 것인데, 바다와 인접한 지역의 만성적인 수해와 바닷물의 역류로 인한 염해의 피해에서 농지를 보호하려는 목적과 농업용수 확보의 기능, 그리고 농토 확장의 효과를 동시에 보려한 것이지만, 안병석씨는 농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그렇게 좋거나 그런 거는 없었다고 한다.

"자꾸 물을 막아버리니까 바다가 변한다 말이야, 그게 바다나 강이나 있던 대로 놔 두어야지. 이리저리 인간들이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살던 것들이 떠나기도 하고 새로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인간들 하고 똑 같은 셈이라. 나 같은 사람이야 그게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나라에서 하는 일들이라 관심도 없었지. 요새 사람들 같으면 데모도 하고 뭐 어떻게 할텐데, 그때야 뭐 그런거 꿈이나 꾸기를 했나, 그저 생각나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삼교천 공사할 때 왔다가서 그날 밤에 돌아가셨다는거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네……."

안병석씨가 사는 현덕면을 둘러싸고 이곳 저곳을 막아대도 예전 같지는 않았지

만 조금씩 어업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남양만에 부두를 만든다 어쩌다 하면서는 어민들이 다치기 시작하는거야. 정부에서 어민들이 다치니까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어업하는 규모에 따라 다 제 각각 돈을 다르게 받았지. 수십억 받은 사람도 있고 천만원도 안되게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나도 규모가 작으니까 한 천사백만원 꼴로 보상을 받았는데, 내가 가진 배가 톤 반 정도 되는 거니까 그것 밖에 나오질 않아. 그런데 생각해 보라 말이야, 그거 돈 천만원 받아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말이야. 대하 한참 잡힐 때 땅은 장만해둔게 있어 어업하면서도 틈틈히 농사를 하기는 했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 식구 살기에는 턱도 없는 땅이야. 논 한 삼천 평 있었는데, 촌에서 논 삼천 평이라고 해봐야 자산 가치는 없고, 쌀 한 서른 가마 정도 나오니까 식구들 양식하면 딱 맞는 규모라 말이야, 그래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바다도 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뺏긴 꼴만 된거지. 그렇게 해서 내가 어업에서 손뎌 지가 한 팔 년 가까이 돼요. 아들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잘 된 일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서운하기만 하더라구요.”라며 심정을 토로한다.

8) 노년 시절

강제적으로 어업을 그만 둔 안병석씨는 육십이 넘었어도 일하던 몸이라 일에서 손을 놓으니 이상해서 잠깐 쉬다가 안산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이삼 년 다녔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어업을 하였던 터라 그의 아내도 식당같은 데에서 일을 했다. 딸 둘, 아들 셋, 오남매를 낳아 기르는 것은 전부 아내인 오순분씨 몫이었고, 남편 하는 일이 늘 일손이 모자라, 직접 배를 타진 않았지만 남편과 같이 어업을 한 셈이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조사하는 날은 마침 집에 계시질 않아 만나보지는 못했다. 요즈음 안병석씨는 경남 양산에 살던 큰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같이 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어 집에서 농사나 돌보면서 소일하고 있다.

9) 신앙생활

안병석씨는 청·장년 시절을 어업에 종사하면서 삶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그래서 그와 관련하여 혹 배를 부리면서 행했었던 민속신앙에 대한 질문을 해보았지만, 그는 간단한 민간의례조차도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난 이상하게 그런 거를 하지 않았어. 다른 데를 가보면 배를 새로 만들면 고사도 지내고 정월에 풍어제도 지내고 용왕한테 제사도 올리고 하더만, 난 그런 거를 일체 안했어요. 한강에서 배 만들어 와 가지고도 밥 한 숟가락 고시래 뿌리질 않았으니까. 난 뭐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안해요, 우리 안사람은 천주교회 다니고, 아들은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난 그런 거 하기가 싫어. 동네서 대보름이나 그런 날 놀면 같이 놀기는 하는데, 내가 나서서 이래하자 저래하자 한번도 애기한 적이 없어요. 그저 내가 믿는 거라곤 몸뚱아리 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워낙 가진게 없이 태어나서 “이만하게 이루어 났으니 된거지 뭐, 난 평생 몸뚱아리 하나 믿고 살았거던, 그거 하나 달랑 남겨준 부모 원망해 본 적도 없고, 그거라도 튼튼했으니 이만큼이나 살게 된거지.” 하며 “허허.” 웃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쳤다.

3. 마무리

본문에서는 경기도지역에서 정치적·경제적·지리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지역 중에서 연천군 장남면과 평택시 진덕면에 거주하고 있는 토박이를 각각 1명씩 선정, 이들을 중심으로 개인생활사를 정리해 보았다. 연천군 장남면 원당 3리의 권태웅씨와 평택시 권덕면 장수리의 안병석씨에게는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이들은 모두 일제시대에 태어나 한국전쟁과 여러 정치적인 사건들과 경제성장을 관망해 온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들의 삶의 터전이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에 휩쓸려서 문화변동이 일어난 곳이며, 이들 모두 어느 정도의 타지생활을 경험한 공통점이 있다.

연천군의 권태웅씨는 휴전선이 그어진 뒤, 휴전선 인접 지역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고향마을에 민간인 출입통제선이 생기고, 그로 인해 마을의 문화와 풍습, 민속적인 자료들이 보존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한 원인은 마을의 토박이들 중 출입의 불편을 느낀 일부가 이주를 하였고, 이들 대신 타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정착함으로써 그 마을의 전통이 계속적으로 보존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연천군은 민북지역인데, 이 민북지역은 출입통제와 정책적인 입주로 인한 낮은 인구밀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출입 절차와 통제에 의한 고립성, 그리고 개발을 위한 공식적 제도와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은 점, 근대적 시장체계가 지역 내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도 한계지역의 특성을 갖

는다. 이에 비해서 보전지역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는데, 민간인의 출입통제와 개발억제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보전된 점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외적인 압력에 의해 고유문화가 해체되어서 문화의 연결고리를 갖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평택시의 안병석씨가 거주하고 있는 장수리는 한때 반농반어촌 지역이었으나 아산만방조제가 형성되면서 농업을 주로 하게 된 곳이다. 안병석씨는 일제강점기에 북해도로 징용을 다녀온 뒤 장수리에 정착하여, 어업을 위주로 생계를 꾸려가다가 아산만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농업을 위주로 생계를 꾸려나가게 된 경우이다. 아산만방조제의 형성으로 인해 장수리와 인근 마을은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었고, 이러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반농반어촌 문화에서 농촌 문화로 변화하는 면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권태웅과 안병석이라는 개인의 생활사를 살펴보았다. 객관적 역사의 흐름 속을 헤쳐나온 개인들의 생활사를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는 그 개인들이 속해 있는 한 지역 생활풍습의 고유성과 외적 개입에 따른 생활상의 변화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전체 지역문화의 변화상, 나아가 우리나라의 변화상까지도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생활사를 세밀히 들여다 보는 것은 각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속한 지역을 이해하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개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